



3면

“무리한 사사오입식 해석... 명백한 위헌”

# 전주매일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음 9월 10일) 제287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 하고 있다.

## 수몰민 애환을 위로하다

진안군, 용담댐 준공 20주년 기념식

진안군은 14일 전국 5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용담댐 준공 20주년(2001.10.13. 준공)을 맞이해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기념식을 가졌다.

용담댐은 지난 2001년 준공해 전주, 익산, 군산 등을 비롯해 전북, 충청도 일원 8개 시군 130만명에게 생활, 공업,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용담댐 수몰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배정기, 박형열 씨 등 2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용담댐 관련 각종 규제 개선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새롭게 구성하는 용담댐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위촉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또한 용담댐 건설로 인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주민들의 삶의 모습과 변화된 마을 사람들의 모습, 지역의 역사문화 사진을 통해 수몰민의 애환을 달래고 진안 역사문화와 이주민의 삶, 용담댐과 수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과거의 안타깝고 그리운 고향의 추억을 넘어 희망차고 밝은 미래의 상징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다.

서 제작한 용담댐 준공 20주년 기념 영상물을 시청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에 우리 진안군민들이 더 이상 용담호로 인해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용담댐 관련 각종 협약 체결 시 진안군과 사전 협의하고, 모든 절차와 내용을 함께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관내 6개 사회단체(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의회(회장 김정길) 진안군 애환운동본부(회장 우태만),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최순석), 자유총연맹(회장 배병선), 행정동우회(회장 송상모), 자연보호협의회(회장 구동수)의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의회 김정길 회장이 대표해 낭독했다.

김정길 용담호 수질개선 주민협의회 회장은 “이번 진안군의 사회단체에서 공동으로 채택하여 호수하는 건의문의 내용을 부디 한국수자원공사가 외면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용담댐 수몰민들을 비롯한 진안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제2회 전북도 삼락농정대상 수상자 선정

전북도는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농어업인 등을 발굴해 '제2회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상 부문은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3개 부문으로 삼락농정 실현에 노력하거나 이바지

한 공이 큰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마을, 식품사업자, 농림수산물 식품 단체 및 관계자, 학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람찾는 농민대상에는 완주군 이기성 씨, 제값받는 농업대상에는 고창군 서재필 씨, 사람찾는 농촌대상에는 진안군 원연장마을이 선정됐다.

/유호상 기자

### 균형발전 성과·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

송하진 도지사 “전북, 특화 균형발전 전략 포함돼야” 타 지역 메가시티처럼 ‘전북 강소권역’ 지원 요청

송 지사 발언에 향후 강원·제주·전북에서 만남 정부, 검토·특화발전제도 등으로 제도적 보완키로 행사 후 별도로 문 대통령에 특화발전 전략 전달

전북도가 초광역 논의가 활발한 인근 광역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독자적이며 유연한 ‘전북형 메가시티’를 건의하고 나섰다.

특히, 타지역 메가시티처럼 ‘전북 강소권역’ 등의 특화된 발전전략 포함도 요청하면서 지역균형발전 핵심정책 추진이 기대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광역시가 없는 전북지역이 주변 메가시티처럼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특화 발전전략 포함을 건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 지사,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송 지사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최근 넷플릭스에서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말문을 열었다.

송 지사는 “기회와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사”라며 “잘 나가는 사회도 끝없이 잘 나려 하고 못 나가는 사회는 그런 상황에서

기를 쓰고 잘 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게임으로 ‘네스게임’이 된다”며 “전북은 이 같은 게임에 끼지 못하고 뒤떨어져서 서럽게 울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지역이나 고르게 잘 사는 이른바 균형있게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은 이미 기회와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지역 메가시티라는 형태로 뭉쳐 더 큰 기회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 지사는 “광역시가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불공정, 불평등한 논의에 끼지 못한 전북과 강원, 제주를 위해 메가시티가 아닌 또다른 이름이 있어야 한다”며 “타지역 메가시티처럼

전북새만금권역, 강원평화권역, 제주특별권역 등의 강소권역의 이름으로 메가시티 반열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발전전략을 포함시켜 추진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독자적이면서도 유연한 ‘전북형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는 상태다. 내·외부적인 연결성을 높이고 주변 메가시티와 협력 수요가 많고 연관성이 높은 기능을 연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한 협력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써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의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와 새롭게 도전하는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이 ‘초광역 협력시제’를 발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도 공개했다.

‘초광역 협력’은 지역주도의 공유·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에 넘어 초광역적 정책과 행정수요에 대응,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이날 송 지사의 발언에 대해 강원도는 지지의 뜻을 밝히며 ‘강원 평화 특별자치권역’을 주장했으며, 세 지역은 앞으로 강원·제주·전북에서 추후 만남을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겸 총리는 송 지사의 발언에 검토의 뜻을 밝혔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특화발전제도 등으로 제도적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열 균형발전장관은 전북새만금권역과 관련해 계속 논의를 해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하진 지사는 행사 후 별도로 문 대통령을 만나 특화발전전략에 대한 뜻을 거듭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각별히 관심을 갖고 풀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개발공사**

축! 전주매일 창간

## 언제나 도민과 함께 전북개발공사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전라북도를 위해 전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